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사태와 우리 경제 · 전산업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부

러시아 루블화 평가절하 및 모라토리엄 선언

러시아는 지난 8월 17일 루블화 표시 외채에 대해 90일간의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전격 선언함과 동시에 루블화의 가치를 현재 미국 US\$당 6.3루블에서 9.5루블로 33.6%를 절하하였다.

러시아는 이날 세르게이 키리엔코 총리와 중앙은행 총재의 공동성명을 통해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루블화 표시채권에 대한 지불을 90일 동안 유예하고 단미국채(GKO)를 대체할 다른 종류의 채권을 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러시아의 이같은 조치로 유럽과 아시아의 주가가 일제히 폭락하는 등 세계 금융시장 전체가 혼돈에 휩싸였다. 한국도 러시아에 대해 갖고 있는 27억7천만\$ 달하는 채권 회수가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모라토리엄의 원인

- 원자재값 폭락, 아시아 경제위기가 치명타 -

러시아의 루블화 평가절하와 외채 지불중단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최근들어 주가는 폭락세를 지속하였고 루블화도 계속 낙하되고 있었다. 여기에 국가신용도 추락까지 겹쳐 불에 기름을 부은 형

국이 되었다. 러시아 경제가 이렇게 된 데는 시장 경제 전환 이후부터 불안한 경제상황에서 국제원자재 가격폭락과 아시아 경제 및 금융위기가 큰 원인이었다.

시장경제 이후 러시아 경제는 사실상 기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원유, 원자재 수출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해온 러시아는 아시아의 경제위기로 수출은 대폭 감소하였으며 가격도 인하되어 외환부족 사태를 불러오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의 재정적자 규모가 50억\$에 달해(국내총생산 GDP의 7%) 정부는 매번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60~150%라는 고수익율의 GKO(루블화표시 단기채권) 발행이나 차관도입으로 충당해왔다.

진출기업 현황 · 대책

▲ 투자현황 및 대응책 = 현지진출 국내 기업들은 우선 투자대금을 제대로 회수할지 걱정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투자약은 85건 1억9백만달러(잔액기준)다. 진출기업은 189개사로 추산되고 있다.

현대건설 등 현대그룹 3개사가 블라디보스토크에 호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대 리바트가 같은 장소에서 원목개발사업에 1,600달러를 투자한 상태다. 삼성물산은 석유제품과 가전, 부동산 등에 투자해

〈국내기업 러 투자현황〉

| 기업명 | 투자내용 | 금액 (만달러) |
|--------|---------------|-------------|
| 현대종합상사 | 목재가구 | 1,600 |
| 현대건설 | 호텔건립 | 1,300 |
| 삼성전자 | 운수보관업등 | 1,300 |
| 대우 | 알루미늄제조및 무역 | 1,000 |
| 동아시아가스 | 가스관건설 | 700 |
| 한국제강 | 철판제조 | 700 |
| 호텔롯데 | 숙박시설 | 600 |
| 영유통 | 선박해체업 | 500 |
| 데이콤 | 해저케이블 | 300 |
| 한라중공업 | 가스터빈 | 170 |
| LG상사 | 무역업 | 170 |
| LG전자 | 가전제품수리 | 50 |

* 재경부 허가 기준.

왔다. 또 LG정보통신이 나훗카에서 시내전화 서비스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고합그룹이 고합엔지니어링과 고합물산을 통해 농업분야에서 240만달러를 투자해놓고 있다. 건설분야에서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현지에서 1건씩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진출기업은 현지 매출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고 루블화 표시자산을 달러화로 바꾸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비상대책을 강구중이다.

▲ **인접지역 진출업체에도 영향** = 러시아와 유럽시장을 겨냥해 인접 CIS회원국에 공장을 설립한 기업들에게도 타격이 우려된다. CIS회원국들은 경제적으로 러시아 의존도가 높아 루블화 절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LG전자는 지난 6월 카자흐스탄에 TV생산라인을 준공했으며 러시아 내에서는 현지업체와 합작해 TV 조립라인을 가동중으로 러시아 지역내의 구매력 감소를 우려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우즈베키스

탄, 카자흐스탄에 종합 가전생산라인을 가동중인 대우전자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앞으로 물품대금 확보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우즈베키스탄에 공장을 가동중인 대우자동차도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 인접지역 진출업체들도 외상거래를 중단하고 현지 재고를 줄이는 등 러시아 리스크(위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 **주요 대기업 움직임** = 삼성, 현대, 대우, LG 등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지난해초부터 러시아 사업규모를 축소해 와 당장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 현지 법인에 긴급지시를 내려 현황 파악과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권 투자·교역 전략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대기업들은 특히 러시아 모라토리엄으로 현지 채권을 보유한 유럽과 미국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이들과 거래하는 국내기업의 외화조달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외화자금 운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대러시아 수출입 현황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21번째 교역상대국으로 총 수출의 1.2%(지난해 17억6,800만달러, 올 상반기 7억1천8백만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기업들이 신용거래보다는 현금결제에 의한 대(對)러 교역을 선호해 온 점에 비춰볼 때 이번 러시아 사태가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TDX·전자제품 등의 수출시 외상거래를 해온 우리 기업들은 수출미수금(약 2억달러 추정)을 회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90년대 들어 연평균 30% 이상의 높은 신장률을 보여온 대러 수출은 크게 위축될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대러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점하고 있는 전기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수출해 온 우리 기업들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입 추이

(단위 = 억달러)

| 구분 | 92 | 93 | 94 | 95 | 96 | 97 | 98.1~4 |
|------|-----|---------------|----------------|----------------|----------------|-----------------|----------------|
| 수출 | 1.2 | 6.0 (500) | 9.6 (60.0) | 14.2 (47.2) | 19.7 (39.0) | 17.7 (-10.1) | 5.2 (1.5) |
| 수입 | 0.7 | 9.7 (1400) | 12.3 (26.1) | 18.9 (53.9) | 18.1 (-4.4) | 15.3 (-15.2) | 3.7 (-29.3) |
| 수출입차 | 0.5 | -3.7 | -2.7 | -4.7 | 1.6 | 2.4 | 1.5 |

※ ()는 전년대비 증감률(%)

국내기업의 대러시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 백만달러, 투자잔액 기준>

| 구분 | 96년말 | | 97년말 | | 98년 4월 말 | |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제조업 | 47.2 | 43.9 | 47.5 | 41.1 | 47.5 | 39.3 |
| 광업 | 25.1 | 23.3 | 25.1 | 21.7 | 20.1 | 16.6 |
| 무역업 | 5.3 | 4.9 | 6.1 | 5.3 | 6.1 | 5.0 |
| 운수업 | - | - | - | - | 10.3 | 8.5 |
| 기타 | 30.0 | 27.9 | 36.9 | 31.9 | 36.8 | 30.5 |
| 러시아투자자(A) | 107.6 | 100.0 | 115.6 | 100.0 | 120.8 | 100.0 |
| 총해외투자(B) | 13,794.9 | | 16,436.9 | | 17,233.1 | |
| A/B(%) | 0.8 | | 0.7 | | 0.7 | |

※ 자료 : 한국은행

은 96년말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통관 강화로 러시아 직수출이 격감하자 이에 대비해 부품 수출과 우회 수출로 판로를 개척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러시아의 통관 강화는 물론 수입수요 감퇴와 CIS 시장의 동반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부품 수출과 우회 수출도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아울러 향신료 및 조미료·커피·우유와 크림·혁제의류·과자류·라면·전자저울·블라우스 등 대러 수출의존도가 20%를 넘는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수출시장으로서 러시아가 갖는 매력이 상당 부분 손실됨으로써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전자수출 큰 타격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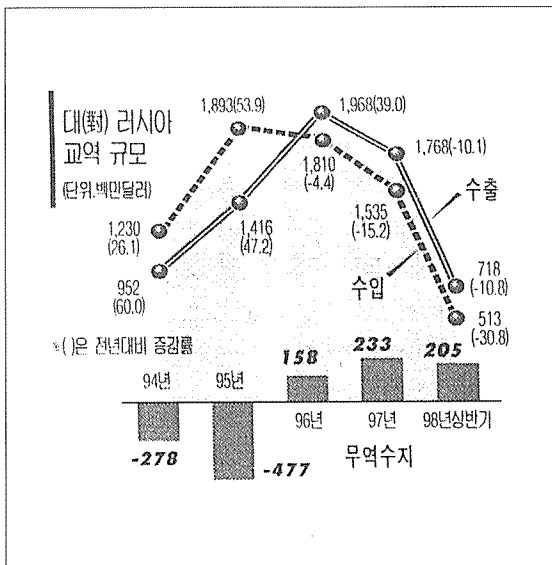
국내 전자업계는 러시아 현지에 생산공장을 가동 중인 업체는 없으나 러시아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와 이에 따른 옛소련(CIS) 지역의 전반적 위축으로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자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러시아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한 각종 대응책을 마련해 왔으며, 이날 모라토리엄 선언소식을 듣고 러시아 지역본부와 본사를 연결해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을 검토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이다.

국내 업계의 러시아 수출액은 5억3천3백만달러로 전체 수출액 4백14억달러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나 CIS지역을 종합하면 20%에 육박하는 규모로 중요한 시장 가운데 하나다.

삼성전자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현지 생산라인 설치를 추진중이나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러시아 가전시장이 20% 정도 축소된 상황이어서 앞으로 많게는 30% 정도 시장이 더 축소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6월 카자흐스탄에 TV생산라인을 준공했으며 러시아 내에서는 현지 업체와 합작



해 TV조립라인을 가동중으로 러시아 지역내의 구매력 감소를 우려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우전자는 러시아에 생산라인이 없어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앞으로 물품대금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러시아 시장이 최소 2, 3년간은 정상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돼 수출시장 다변화의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이 대표적인 통신장비 수출지역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LG정보통신·대우통신·한화정보통신 등 4대 통신시스템업체는 정확한 피해 현황파악에 나서는 한편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월말 현재 러시아에는 한국통신을 비롯, 데이콤·삼성전자·LG정보통신 등 4개 회사가 모두 2천2백54만달러 규모로 통신서비스사업에 참여중이며 삼성전자와 LG정보통신은 445만달러의 TDX 교환기 합작공장을 설립했다. 대우통신도 우크라이나와 우즈베키스탄 등에 교환기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통신장비업체는 현재 미수금에 대해서는 당분간 회수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더욱이 러시아지역은 국내 주력수출품목인 교환기·전송장비 및 광케이블 등 기간통신장비의 주요 수출지역이라는 점에서 향후 통신장비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신서비스사업은 물론 현지 생산공장을 통한 교환기 생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17일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관련, 러시아의 신용도 등을 감안해 우리 기업들이 지금까지 현금을 받고 수출을 해왔기 때문에 수출 미수금 발생 등의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

다. 그러나 현재 부진한 러시아에 대한 수출은 이번 일로 인해 더욱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의 대응책 마련

97년 11월 외환 위기 이후 IMF 체제하에서 강도 높은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대내외적으로 미칠 파장을 고려해 두 가지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첫째,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따른 국제자본시장의 경색으로 향후 채권국의 자금 회수 움직임이 빨라지고 추가적인 외화 조달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외화 조달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 우리 정부는 현 400억달러 수준의 가용 외환보유고를 500억달러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최대 수출시장인 동남아시아의 축소와 엔화 약세로 인해 수출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의 유치도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가용 외환 보유하고 확충 방법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무역금융을 활성화시켜 수출을 늘리고, 예정된 외자 유치를 앞당기기 위해 국제금융기관과의 금융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외자 유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번 러시아 사태를 계기로 외국자본이 아시아·중남미·중동구 등 신흥시장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정부는 현재의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보다 강력히 추진, 여타 개도권 국가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